

곡성, 미래형 교육자치 전국서 빛났다

교육부 공모 우수지구 선정
사업 효율·효과성 제고 호평
지역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곡성군이 곡성교육지원청과 함께 2021년도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 우수지구로 선정돼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13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곡성군과 곡성교육지원청은 교육부 공모사업인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운영 사업에 선정됐다.

이후 양 기관은 ▲중간지원조직 구성

▲교육거버넌스 구축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혁신교육 확산을 핵심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지역 교육 혁신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특히 곡성군은 교육지원청, 민간 교육기관 등과 민·관·학 교육협업체인 미래교육재단을 출범시키면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모두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단은 자치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협력을 위해 기관장 정례회, 실무협의체 운영, 기관 간 MOU 등을 통해 서로 간의 결속력을 강화시켰다.

곡성미래교육재단은 '사람과 미래를

있는 즐거운 교육도시'라는 목표 아래 숲교육, 연극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는 창의 예술교육을 선보였다.

정소년 성장박람회, 4차 산업 교육을 위한 꿈키움마루 조성 등 청소년들이 자 주도적으로 진로직업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 강사 양성, 학습동아리 지원 등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도 힘썼다. 최근에는 도시 아이들이 농촌에서 살면서 자연과 생태를 배울 수 있는 농촌유학을 운영하면서 농촌

교육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앞으로도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은 수요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의 교육 참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군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곡성형 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미래형 교육자치협력 지구 운영을 통해 군, 교육청, 마을이 하나가 돼서 지역의 작은 학교들을 되살리고 아이들이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발견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SOC 확충·인구증가 등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2022 새해설계

김산 무안군수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함께 대규모 SOC 확충, 인구 증가 등 지역성장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발전시켜 일차 성과로 일구어겠습니다.”

김산 무안군수는 최근 신년사를 통해 “군정의 완성도를 높여 전남의 수도 플랫폼 무안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군 공항 이전 저지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현재 무안은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첨단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며, 나아가 서남권 유통물류 거점지대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 등 공항 활성화에 여념이 없다.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새로운 노선이 취항하고, 2조 6,000억 원을 투입한 호남선 KTX 2단계 사업과 활주로 연장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착공됐다. 이에 따라 무안군 미래 비전에 찬물을 끼얹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고 단호하게 요청해 나갈 방침이다.

무안군은 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항공특화산업단지가 올해 준공 예정으로 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 연계한 첨단항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산업구조를 재편해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무안시조기 전환과 도농 균

형개발을 통한 상생 발전을 꾀하고 있다. 최근 30년 만에 9만 인구수를 회복한 무안군은 시 전환에 탄력을 받게 돼 '전남의 수도'로서의 위상 정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기초생활 인프라를 도시 수준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지속가능한 농수축산 융복합 기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무안의 6차 산업형 융복합 산업의 거점이 될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으로 양파·마늘 대표 작물의 과학영농을 선도할 국립과속체연구소 설립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물 저장 기능을 높여 수급을 조절할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을 건립하고 기후변화 대응 첨단 스마트영농단지, 고품질 아열대작목 육성 등 스마트 농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김산 군수는 “비전2040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민생을 챙기고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무안·박주현 기자

목포, 코로나19 집중 검사 이틀 동안 공무원 260명 투입

목포시가 13일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한 집중 검사를 시작했다.

시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삼학동, 연산동, 용당 등 각 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등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특히 ▲유증상자 ▲타지역 방문자 또는 타지역 거주자와 접촉한 자 ▲취약시설 종사자 ▲집단 생활자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를 희망하는 시민도 검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사소는 접수부스와 검체 채취를 위한 검사부스로 운영되는데 시는 이틀 동안 공무원 총 260명을 접수부스 인력으로 투입해 원활하고 안전한 진단 검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사 참여와 검사 목적 외의 외출·이동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14일에는 만호동·유달동·죽교동



목포시가 13일 오전부터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한 집중 검사를 시작했다.

/목포시 제공

·북항동·용해동·하당동·신흥동·삼향동 차장에서 각각 검사소를 운영한다.
·육암동·부흥동·부주동 행정복지센터주 이로동은 행정복지센터 정문, 상동은

항도여중 주차장에서 각각 운영한다.
/목포·박승경 기자

학교-향교 연계 인성교육 활성화 모색

담양교육청-담양향교 협의회

담양교육지원청이 최근 담양향교를 방문해 2022학년도 향교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관련 업무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지

역 향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학생들의 인성역량 함양과 흥미를 고려한 체험중심 프로그램 운영 방안 및 학교-향교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협력 지원 등을 논의했다.

이어 대성전으로 자리를 옮겨 사무국

장, 유도회장, 모성회장 등 유림 어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장 부임을 성현에게 알리는 의식을 진행했다.

김용조 전교는 “향교 업무에 협조해준 교육장께 감사드리고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힘쓰겠다”며 “올해에도 향교 주관 행사에 많은

학교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수 담양교육장은 “학생들이 품격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양 기관의 역할”이라며 “지역교육기관인 향교가 선현들의 뜻을 받들어 학교와 마을을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밝혔다. /담양·정일남 기자

장흥 대덕읍, 이웃돕기 릴레이 1,660만원 기탁

장흥군 대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장 송남신, 공동위원장 김용기)가 새해 추진하는 기부 릴레이 운동에 1-9호 기탁 행렬이 이어졌다. 올 들어 13일 현재 전달된 기부금 총액은 1,660만원이다.

기부 릴레이 참여자는 대덕읍이장자치회 300만원, 대립농조합법인 200만원, 전관농협, 대덕읍어촌계장연합회, 대덕읍 새마을금고봉사단, 대덕읍사무소

선보연 전 총무팀장 각 100만원, 대덕회진장례식장, ㈜천우 대덕읍MS식자재마트, 대덕읍장우회 각 50만원 등이다.

이밖에도 개인과 단체에서 610만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액은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해 대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필요 사업 추진 시 배정받아서 사용한다.

/장흥·이옥현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무안 해제면 새마을부녀회, 떡국 나눔

무안군 해제면 새마을부녀회는 최근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갖고 지역 내 경로당과 불우이웃 등 200여 곳에 떡국 떡 400kg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새마을부녀회원 10여명과 해제면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과 저소득층 세대를 방문해 떡국 떡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을 가졌다. 강애순 부녀회장은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와 추운 겨울을 함께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제면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는 매년 환경보호, 복달임 행사, 김장나눔 행사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무안·박주현 기자



한전 순천지사, 주택용소방시설 기증

순천소방서는 최근 한국전력 순천지사가 주택용소방시설 100세트를 기증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전 순천지사의 주택용소방시설 기증은 2020년 9월 이후 두 번째이며, 지금까지 누적 200세트를 기증했다. 기증받은 소방시설은 순천시와 구례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에 배부할 예정이다.

하수철 순천소방서장은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한국전력 순천지사에서 기증한 주택용소방시설을 신속히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오근 한전 순천지사장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사회공헌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금원전기술라텍, 장애인회관에 겨울의복 전달

금원전기술라텍(대표 김남홍)이 장애인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며 300만원 상당의 겨울의복을 최근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에 전달했다.

김남홍 대표는 “추운 날씨에 코로나19가 겹치며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선물에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안면 홀몸노인 15가구

전기 안전점검 및 개·보수’, ‘공산면 조부모가정 주택화재 복구’, 전남도 시책사업인 ‘취약계층 노후 전기시설 점검’ 등 전기설비와 관련된 자신의 재능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송중운 장애인연합회장은 “지역사회 선한 영향력을 꾸준히 전파해온 김 대표의 나눔과 선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나주·조충권 기자